

목포 대양동에 지방산단 조성

목포시가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대양동에 지방산단을 조성한다.

목포시는 지난 13일 지방산업단지 수요조사 결과 및 지구계획(안)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9월 전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는 등 대양동 산단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산단 조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양동 지방산단은 장자동 마을 일

사업비 2천억 투입 158만㎡ 규모... 용지난 해소 기대

조선 클러스터·태양광·세라믹 제2전용단지 등 입주

대 158만 6천㎡ 부지에 조성되며 사업비 2천억 원이 투입된다.

대양동 지방산단에는 핵심 전략산업과 미래 해양산업인 식품 산업 거점단지를 비롯해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최첨단 레저 장비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또 세라믹 제 2 전용단지와 태양

광·수소 전지 부품 소재 생산공장, 기초 소재 복합 가공 물류센터 등이 입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가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코리아리서처에 의뢰해 입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입지 희망 기업이 118개에 달했다. 이들 기업들이 필요 하는 부지 면적도 315만㎡로 계

획 면적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양동 산단은 영암 대불국가 산업단지와 삼진 일반 산업단지, 산정 농공단지, 무안 삼향 농공단지와의 인접해 있어 관련 산업과의 연관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은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산업용지난이 심각해지면서 신규 공단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hc@

“과감한 투자·조직 개편, 내년엔 흑자”

농협 목포유통센터 조성수 대표



할 예정이다. 또 기존 3부 10팀제에서 고객만족과 일선 사업추진 부문을 강화한 2부 9팀제로 조직을 재 정비했다.

농협 목포유통센터가 과감한 투자 등 공격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2009년 흑자 경영 원년’을 선언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농협 목포유통센터는 한때 누적 적자 확대로 사업장 폐쇄까지 논의됐으나 지난 해 534억 원의 매출액을 올려 2006년에 비해 70억 원이 증가한 15%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목포유통센터는 내년부터 흑자 전환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점인 ‘아침마루’와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인증 설비시설 도입에 3억 원을 투입했으며 식자재 도매 매장 환경 개선 및 신선코너 증축 등에 7억 원을 신규 투자

지난 달 25일 취임한 조성수 대표(사진)는 “사업량 확대 및 영업추진 역량을 강화해 2009년을 흑자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올해 유통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목포유통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한 부문은 과감히 개선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유통매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대표는 또 “지역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물류기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외식하는 날’ 무안군 구내식당 2회 휴무

구례군에 이어 무안군도 지역 식당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군청 구내식당을 매달 두차례(둘째·네째주 금요일) 휴무한다.

무안군은 그동안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폐업하는 음식점소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이달부터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관기관과 단체에

도 지역 음식점 이용을 권유하는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날’로 정해 공무원들의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무안군청 구내식당은 하루 평균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내 음식점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특수 사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안=채희중기자 chae@

목포시교육청 학교급식 설명회



목포시교육청(교육장 김춘산)이 최근 새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기본 방향 설명회를 가졌다. 목포시교육청은 설명회에서 급식업체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개선방안을 시달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진돗개 테마파크’ 표류 언제까지...

부지 매입비 90억 확보 안돼 2년째 착공도 못해

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진돗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부지 매입 문제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진도군은 진돗개 체형장이 있는 진도를 동외리 일대 21만㎡에 진돗개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명소로 가꿀 계획이었으나 부지 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 사

업은 지난 2005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놀이공원과 경관장, 연구관리센터, 사육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부지 매입비 9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2년 넘게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는 군비에서 충당해야 하지만 알약한 군 재

정 등으로 여태껏 단 한푼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 53호로 지정돼 있는 진돗개는 지난 2005년 5월 영국켄넬 클럽(KC)과 세계견연맹(FCI)에 등록되는 등 세계적 명견 반열에 올랐다.

/진도=박현영기자 hwpark@

“신안의 민속문화 DVD로 보세요”

신안문화원 제작 배포

신안문화원이 섬 지역의 민속 문화를 올바르게 전승시키고, 문

화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안군의 민속문화 DVD’를 제작, 배포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은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민속 문화가 산재해 있으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이 제대로 안돼 점차 원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신안문화원은 지난해 대표적인 민속 문화와 관련된 영상자료를 DVD로 제작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Sense Wood 신품가구 80~70%





Big Sale

본말히 본사지원



